The Key XI.
하나님! 이해할 수 없으나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 마태복음 7:7 - 하늘의 속성

(1) 의미와 가치

우리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의미란 가치를 묻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과 하늘은 어떤 가치인가에 대한 질문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된다. 신앙의 첫 단계는 내 마음안에 '가치의 정렬'이 일어나는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주어지는 단계이다. 그래서 신앙의 밑바탕은 '기쁨'이 된다. 구원의 기쁨, 자유를 경험하는 기쁨, 회복과 치유의 기쁨, 소망의 기쁨 등 기쁨으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종교는 전혀 기쁨이 없다. 그 이유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태어남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적, 교리적인 신앙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자녀가 탄생할 때의 상황은 '기쁨'이다. 생명은 기쁨인 것이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바로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상태이다. 새로운 가치정렬이 새로운 속사람으로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신앙의 점검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피곤하고 지치면 기쁨이 없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기쁨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기쁨, 내가 그 분의 자녀라는 기쁨을 명확히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존재'가 분명해진다. 기쁨은 존재의 회복을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창조의 회복을 말한다. (심히 기뻤더라. 토브의 회복)

[마태복음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는 기쁨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상태가 소유적 인간에서 존재적 인간이 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이다.

(2) 하늘의 속성

하늘과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존재적으로 이미 하늘의 뜻을 향해 가치 정렬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늘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이다. 의심이 없다는 것은 하늘의 속성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7:7 이후로 설명하신다.

[마태복음 7:7-8]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이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뜻이 속사람 안에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늘이 나의 모든 삶, 특히 모든 문제와 필요의 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두드릴 수 있다.

하늘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절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

(3) 결국 누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누가 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7:9-11]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결국 자녀의 마음을 말씀하신다. 자녀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마음이다. 온전한 자녀이셨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신다. 아버지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버지의 본성이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겠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2.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1)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극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모든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100% 자녀라고 말할 것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전부가 된다.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자녀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분임을 보이신 것이다. 사람들은 조롱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께 구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표적을 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세대, 존재를 보여지는 것으로 증거해야만 존재임을 인증하고 인정하는 세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과학적 증거로 증명해야 그 사실을 믿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이겠는가?

이런 세상의 핵심은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다. 믿지 못한다. 모든 것을 불신한다.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세대이다. 행복을 나타내는 세상적 가치의 지수가 있는 세대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 세상이 만든 행복의 가치로 쉴 틈 없이 증명해야 하는 세대인 것이다. 소유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어리석은 세대이다. 비본질로 본질을 증명하려 하는 세대이다.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이 네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보아라."고 말한다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왜 너에게 그 증명을 해야하니?" 라고 반문할 것이다.

보여지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워딩이다.

(2)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인가? 요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동안 있었던 것이다 (요나서 1:17).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성난 파도의 희생제물로 던져진 요나는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바다는 잔잔해졌고, 요나는 삼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자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니느웨에 뱉어져 그 백성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죽음 후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마음에 표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보여지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3) 십자가 사건의 의미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은 가장 비참한 죽음 같았으나, 어떤 권세자의 아들도 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마음을 알리셨다.

이제 눈에 보여지는 표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고백하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으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축복을 얻는 자녀 마음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겨 내는 능력이 된다.

*** '신뢰와 기대감'**

신뢰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절대 믿음을 말한다. 그 절대 믿음이 기대감을 갖게하며, 그 기대감은 결국 아버지 마음 안에서 현실이 된다. 이제 자녀의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